무술년 정초 향일암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25일) 여수 향일암 선상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당일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새해 첫 방생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5만원
- 방생물 : 바다거북 1마리 2만원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출　발 : 2월 25일(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회향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3월 2일 무술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무술년 한 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3월 2일(금) 오후 7~9시
-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광장
- 해당띠 : 범, 개, 말(날삼재)
- 준비물 : 쌀 3되 3홉, 나이수만큼 동전, 속옷
- 동참금 : 1인 3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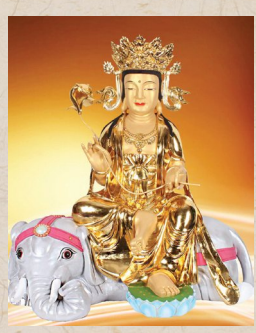
2018. 2 | Vol. 278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삼신불 좌우 협시 문수·보현보살 모연중

▲ 문수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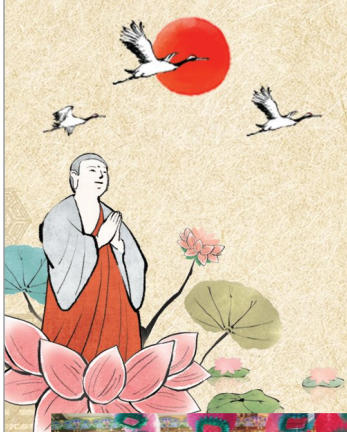


▲ 보현보살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신불 점안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불단의 마지막 불사로 좌우 협시보살로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실천제일 보현보살상을 봉안합니다. 삼신불에 이어 보살상까지 봉안하면 법왕사 대적광전은 완벽한 도량으로 거듭나며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사경, 복장물 모실 분은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대적광전 신중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3층 만불전 신중탱화

▲ 새롭게 모실 4층 대적광전 신중단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8
2
Vol. 278호

04 깨침의 향기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 낳는다(2)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6 비슬산방
기도와 정진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 실상 주지스님

08 법왕논단
진실한 참회가 평화 만든다 · 본원스님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5)
시키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16 우리나라 사찰 건축물
광명과 왕생극락 인도하다

20 명찰 순례
차와 동백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전남 강진 만덕산 백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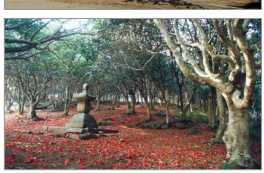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2018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28 법왕사소식

31 법왕사게시판

34 해오름소식

35 해오름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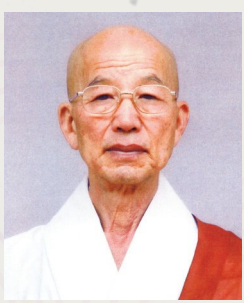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2월 01일 발행 | **통권**_278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상촬,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아이 낳는다(2)

원공당 **정무** 대종사



출산은 붓다를 탄생시키는 성스러운 불사인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스럽지 못한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의 업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유도촉진제로 출산을 빠르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더더구나 제왕절개는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합니다. 제왕절개 출생아가 자연분만 출생아에 비해 정신 이상아가 2배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아기가 좁은 산도를 통해 나올 때에 뚫고 나오는 힘도 길러지고 저항력도 길러집니다.

임신도 출산도 자연생리 현상이요, 병이 아닙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 불안에 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은 중병이 든 것처럼 대부분 병원에서 분만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집에서, 또 조산원에서도 잘들 낳았습니다. 본인이 출산에 대해 잘 자각하고 있으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를 쉽게 낳았듯이 자연스럽게 분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유를 먹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져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몸매가 미워진다 해서 일부러 우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모유에는 아기를 지켜주는 각종 면역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유가 암세포도 파괴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이 모유를 먹고 치유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소아 천식,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 등도 모유를 먹는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분과 다양한 항체 덕분입니다. 심봉사가 동냥젖으로 심청이를 길렀듯이 동냥을 해서라도 모유를 먹여야 합니다. 특히 출산하고 처음 나오는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 먹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모체는 임신 8~9개월이 되면 유선이 발달하여 수유를 준비합니다. 이때 마사지를 통해 유선을 발달시켜주면 좋습니다. 영양실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모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양실조인 경우는 없을 터이고,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모유가 나오지 않는데, 무엇보다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에 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깊이 빠져들면, 성호르몬을 자극하여 유선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만약 아무리 애를 써도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 남편이 협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단 것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산모가 건강하면 모유가 잘 나오기 마련이니,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편 여성 불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큰 병원에서 출산했을 경우 처음에 젖이 나오지 않아 병원에서 우유를 먹인 아이들이 나중에 젖을 빨지 않아 수유에 실패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물만 먹여도 삽니다. 처음에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차라리 굶기는 게 낫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는 힘을 다해 젖을 빨 수 있도록 유도해서라도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젖 먹는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건대 인생에 있어 모유를 먹은 아이가 우유를 먹은 아기보다 생존의 힘이 훨씬 강할 것이란 사실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은 새로운 붓다를 탄생시키는 가장 위대한 불사(佛事)입니다. 모쪼록 이 땅의 모든 임신부들이 평소 수행으로 태교를 잘하여, 마침내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를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기도와 정진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세시풍속에 따르면 예부터 우리 불자들은 새봄의 약동과 함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재(消災) 불공을 하고 정월에 산림기도를 입재하여 한 해의 시작부터 기도정진함으로써 가족들의 평안함과 사회, 나아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해 왔습니다.

정월 초사흘부터 아흐레까지 7일 기도를 올리는 정월 산림기도는 부처님의 명훈가피와 현중가피, 몽중가피를 얻도록 모두가 정근함으로써 법신불의 가호를 받고 원만하고 올바른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자 하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이 법신불의 자리는 일체 존재의 근원인 진리의 당체로서 새로운 우주의 힘이 충전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릴 때 지극정성으로 기도 삼매에 들어 올곧은 마음이 원만성숙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으나, 때에 따라선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들은 '부처님의 영험은 반드시 있다' 는 확신을 놓지 말아야 전생과 금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 장양일체제선법(長養一切諸善法)"이라 하였으니, '믿음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는 것입니다. 자비의 기적은 금강 같은 신심에서 우러나옵니다. 원(願)이 성취되고 안되고는 불자들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자들 각자의 염원에 절실한 원을 세워서 기도 삼매에 들어갔을 때라야만 부처님의 불소호념(佛所護念)한 가피가 이루어집니다.

정초 기도를 잘해 놓으면 일년 중 어느 때고 불시에 일어나는 재앙은 물론 자신의 업장으로 말미암은 마장 장애마저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삼재의 장애에 처하게 된다 해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기도, 염불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 나아가 나라 안에 구석구석 상서로운 자비가호의 기운을 감돌게 하여 재난이 범접치 못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업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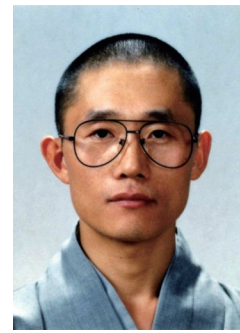
사는 동안 기도(祈禱)는 단순히 복(福)을 비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게 됨으로 해서 자신의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정진에 의해 소원 성취됨은 물론 각자의 수행을 순숙케 하여 깨닫는 마음공부가 지속되어져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고달픈 삶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비우며 일심염불하여 제불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때 자기 자신에게 그 감사한 마음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염불소리와 내가 일체가 되어 우주의 근원을 깨닫는 참나[眞俄]를 발견하는 기도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밝게 깨달으면 곧 부처님 마음이고, 미(迷)하면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고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올 무술년, 새 기운이 한결같이 부처님 믿는 마음과 함께 우리 생활에 항상 충만해지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업(業)을 바꾸는 새해의 첫달이 되도록 내 한 마음 비워내고 자기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참삶의 출발점을 지혜롭고 덕스럽게 열심히 해나가는 바른 기도정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원력들을 기울여 개개인이 부단(不斷)없는 노력으로 무술년 한 해엔 모두가 크나큰 희망을 성취해 봅시다.

진실한 참회가 평화 만든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 지나간 과거사라 가벼이 여겨, 그저 덮어 버림을 능사로 알아 크나큰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과 헌신, 인류 평화, 종교간 화합 등등의 좋은 말과 행위마저 가식이 묻어나며, 우리 사는 세상이 늘 비슷비슷한 유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슬람 군대가 비잔틴 제국을 맹렬하게 침공하자 유럽인에게 이는 곧 '기독교 세계의 위기' 로 인식되었다. 비잔틴 황제로부터 구원을 요청받은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원정에 성공하여 서구 세계의 지도자이자 동서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결심했다.

교황은 1095년 종교회의에서 성지 예루살렘이 야만족 투르크인에게 점령 당했다고 주장하며 탈환을 위한 원정(십자군)을 호소했다.

1096년 프랑스인과 플랑드르인을 중심으로 하는 4개 군단의 십자군 약 3만명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투르크인의 거점도시를 함락시킨 뒤 1099년 제노바에서 공성기와 증원군을 얻어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장악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때 증오에 사로잡힌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 주민 5만명 가운데 4만명을 살육했다고 한다. - 마사카츠의 〈중동사〉에서

십자군이 일어난 시기를 대략 2백년(1096~1291)으로 보나, 실제는 그후로도 수백년간을 두고 양측 모두 성전의 기치를 내걸고 무력 충돌한다. 그 한 예로써, 1571년 지중해를 무대로 양대 세력이 맞붙은 '레판토

전투'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그린 깃발을 높이 단 두 개의 거대한 선단과 〈코란〉의 구절이 적힌 깃발을 매달고 있는 선단이 맞부딪치면서 불붙은 이 싸움은 피로써 지중해가 붉게 물들 만큼 참혹했다고 전해진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고 괴로운 게 사람 몸이다.

유일신 사상은 배타적 성격 강해

중세 수백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악명 높은 종교재판 - 화형식, 그 이론적 배경은 유대민족 건국신화 야훼(여호와·하나님)를 섬기는 독선적 배타적 성격이 짙게 깔린 유일신 사상을 뿌리로 한다.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것을 요구하는 구절(창세기 편)이며,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십계명 중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비롯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하리라. 이민족의 신을 믿는 자는 용서없이 죽여라(신명기 11~13~17 : 7)"는 이 가르침은 훗날 유일신을 숭배하는 자매 종교이면서 앙숙 관계인 이슬람교도에게 골격 그대로 전수된다.

"믿는 사람들아, 유대교도나 그리스도교를 벗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서로 서로가 벗이다. 너희들 속에 그들을 벗으로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자들도 그들과 한 통속이다. 알라께서도 무지막지한 백성을 인도하시지는 않으신다.(코란 생활편 - 5 : 51)"

"알라와 그 사도에 싸움을 걸고 지상에 해악을 뿌리려 하는 자가 받는 벌은 살해되든가 십자가에 박히든가 손발을 반대쪽부터 절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외로 추방할 수밖에 없다. 내세에서는 그들에게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싸움편 - 5 : 33)"

"알라야말로 너희들이 휴식하는 밤을 만드시고, 잘 보이도록 낮을 만드신 분이다. ……. 이러한 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의 주이신 알라이시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마호메트와 알라편 - 40 : 61)"

이처럼 일신교는 근본교리에서부터 신의 전지전능한 권능에 따른 절대 복종을 가르치며, 타 종교는 모두가 우상 내지는 미신으로 여겨 증오와 배척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전 세계 18억 무슬림 최고의 성지인 메카의 카바사원 내부에는 장방형 모양의 검은색 운석을 안치해 두고, 직접 볼 수 없도록 성역화하여 신비감이 더 하도록 현란한 광선빛과 기하학 양식의 모자이크 문양으로 둘레를 장식하였다. 하지만 순례(하즈) 기간 때면 대형 참사, 압사사고가 연례행사를 치

르듯 되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운석의 성분에 대해 알고서 이해할 상식적 지식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2013년 2월 러시아 우랄 근처 첼라빈스크지역에 지름 15~17m로 추정되는 커다란 운석(유성)이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이 운석은 대기권 상층에서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하면서 깨진 파편이 지상에 떨어진 것이다. 천체물리학자들이 수거된 운석의 석질을 분석한 결과, 규산염광석으로 니켈, 철, 아연이 주성분인 광물질임을 밝혀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소행성이라 불리는 운석, 유성은 대개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8천만 개가 우주공간에 떠다니며 운석이란, 강력한 중력을 가진 목성이 소행성을 밀어낼 때 생기는 현상으로서 흔히 별똥이라고도 하는 운석·유성은 사실 매일 100톤가량의 양이 지구촌 곳곳에 무수히 쏟아진다고 하니, 이쯤 되면 이치며 그 진실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한갓 별똥 찌꺼기 돌덩어리일 뿐인 운석을 호화스럽게 돈으로 치장한 카바사원에 모시고 전형적인 우상과 미신으로 숭배하며 섬기는 이를 두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절대 모순의 행위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상의 실체이고 맹신인지는 탐욕을 씻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음의 때를 벗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을 뿐, 오래된 혹세무민에 현혹되어 눈과 귀가 멀고 종교 자체에 세뇌돼 버린 의식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단은 '신성 모독죄'로 간주

종교재판으로 시작된 화형식은 성전을 주장한 십자군시대 혼란이 가중되던 신성 로마제국(962~1555) 시절에 집중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흔들리는 신의 권능과 실추된 교황의 권위 회복을 위해 공포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종교 중심 체제적 사회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가톨릭 기독교의 눈에 벗어나는 자는 곧 사탄, 마귀, 이단으로 몰아 신성 모독죄로 간주하여 재물삼아 화형시켰다.

5백년(1156~1692) 이상,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월드북 백과사전(1979년 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재물이 된 몇몇 주요 인물로는, 1156년 로마에서 청빈을 가르치던 아놀드 사제가 신성 모독죄로서 최초로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 1384년 영국의 종교 개혁가 존 위클리프, 1428년 스페인의 수도승 토그마다, 1432년 체코의 얀 후스, 1436년 프랑스의 잔 다르크, 1526년 독일의 마틴 루터(구명), 1528년 스코틀랜드의 해밀턴, 1543년 동프러

시아의 코페니쿠스(구명), 1553년 스위스의 세리베투스, 1556년 영국의 대주교 크렌머, 1633년 이탈리아 갈릴레이(구명), 1656년 영국 의회로부터 신성 모독죄의 판결로 혀에 낙인 찍히며 혓바닥이 달군 쇠꼬챙이로 뚫린 제임스 네일, 1692년 미국 메사추세스에서 마법을 행했다는 이유로 20명의 죄 없는 남녀를 처형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이 종교재판으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수가 9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면 가톨릭측에서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1404년에 가톨릭교는 적어도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마귀와 관계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스페인에서만도 10,220명이 화형을 당했고, 97,371명을 노예로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러한 가톨릭교의 횡포가 스페인의 인구를 감소시켜 200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에서 6백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가톨릭 기독교의 광신·광란이 난무한 살상행위, 반사회적 잔학성이 진정 국면이 되어 종교 본연의 낮은 자세로 순화, 체질을 바꾸고 노선을 달리한 것은 18세기 들어서였다. 하지만 이 점을 두고 가톨릭 교회측은 단 한 번도 그에 관해 잘못을 뉘우치거나 저지른 중죄악행을 두고 인류에게 용서를 구하며 참회(회개)한 적이라곤 없다. 내한했던 교황 바오로 6세(263대, 폴란드인)가 2010년 중반 무렵, 한 공식자리에서 "중세 교회의 종교 재판은 잘못이었다" 고 한 말이 전부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 지나간 과거사라 가벼이 여겨, 그저 덮어 버림을 능사로 알아 크나큰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과 헌신, 인류 평화, 종교간 화합 등등의 좋은 말과 행위마저 가식이 묻어나며, 우리 사는 세상이 늘 비슷비슷한 유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힘의 뿌리와 힘의 느낌
힘과 힘이 서로 손잡네
이름과 원인 두 가지 맛으로부터
아만과 갈등이 빨리 사라지는 법

〈잡아함〉 '제58경'

시키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8년 1월호, vol. 277)에서는 보살(수메다)이 위빳시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9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빳시 부처님은 모든 무명을 파괴하고, 정등각을 얻은 후, 법륜을 굴려 수 많은 중생들을 통찰로 이끈다. 그때 고따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뚤라'라는 나가왕이였는데, 위빳시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황금의자를 드린다. 그러자 위빳시 부처님은 '아뚤라'에게 '미래에 고따마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위빳시 부처님은 8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수밋따숲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따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ṅ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20번째의 붓다인 시키 부처님(sikhi-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ṃ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ṃsa)_(CST4: KN-Bvṃ, ch.22, vs.1-28) 의역]

_*(아래 주석 1번 참조)

1. 시키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위빳시(vipassi) 부처님에 이어서, 두 발 가진 생명 중에서 최고인 시키(sikhi)라 불리는 정등각자, 승자가 있는데, 동등한 자가 없고, 견줄 이가 없다. 마라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최고의 정등각을 얻은 후,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다.

[vs. 3-5]_최고의 승자이신 시키 부처님이 법륜을 굴렸을 때, 10만 꼬띠(1조)의 중생들에게 첫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나중에 또한 모임 가운데 최고이며, 인간 중에서 최고인 시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자, 9만 꼬띠(9천억)의 중생들에게 두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그리고 [시키 부처님이] 신들을 포함하는 세상에 이중신통(yamaka pāṭihāriya)을 보일 때, 8만 꼬띠(8천억)의 중생에게 세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6-8]_또한 위대한 성자이신 시키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으며,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10만명의 비구로 구성되고, 두 번째 모임은 8만명의 비구로 구성된다. 세 번째 모임은 7만명의 비구로 구성되는데, 마치 물에서 자라지만 더렵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9-11]_그때 나(고따마 부처님)는 아린다마(arindama)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정등각자를 상수로 하는 상가에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만족시킨다. 수많은 훌륭한 [가사]옷, 많은 꼬티(수천만)의 [가사]옷을 보시하고, 나는 또 장식된 코끼리 수레를 정등각자에게 보시한다. 코끼리 수레를 만들고, 허용된 것을 보시하여, 언제나 굳게 확립되어 온 나의 목적을 충족한다.

[vs. 12-13]_ [그러자] 또한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그 시키 부처님은 나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 "지금부터 31겁 후에 이[아린다마]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앗싸타

(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 라 하고, 아버지는 숫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따마(gotama)가 될 것이다. 꼴리따(kolita : 대목건련)와 우빠띳싸(upatissa : 사리뿟따)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앗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따라(uttarā)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따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_ *(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시키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시키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시키] 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 *(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4]_내가(아린다마 = 미래의 고따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시키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5-17]_위대한 성자이신 시키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아루나와띠(aruṇavati)이고, 아루나(aruṇ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빠바와띠(pabhāvati)이다. 그는 7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수짠다까(sucandaka), 기리(giri), 와사바(vasabha)' 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2만4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삽바까마(sabbakāmā)이고, 아들은 아뚤라(atula)이다.

[vs. 18-19]_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코끼리 수레를 타고 출가한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인간(시키 부처님)은 8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세상의 최고 지도자이고, 위대한 영웅이고, 가

장 뛰어난 사람인 시키 부처님은 범천의 권청이 있자 녹야원(migadāya)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신다.

[vs. 20-22]_대성자이신 시키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아비부(abhibhū)와 삼바와(sambhava)이고, 시자는 케망까라(khemaṅkar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사킬라(sakhilā)와 빠두마(padu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뿐다리까(puṇḍarik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시리와따(sirivaḍḍha)와 난다(nanda)이고, 으뜸가는 재가 여성신자는 찌따(cittā)와 수구따(suguttā)이다.

[vs. 23-25]_그 시키 부처님의 신장은 70하타(32m)인데, 뛰어난 32특상을 갖춘 황금기둥과 같다. 또한 그 부처님에게는 한길(1.8m) 정도의 후광이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밤낮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 길이가 3요자나(33km) 정도가 된다. 그 대성자의 수명은 7만년 정도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vs. 26-28]_법의 구름이 비를 내려 신을 포함한 [중생들이] 비에 젖게 하고, 안전함을 얻게 하고, 그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반에 드신다. 뛰어난 32특상과 추가적인 특상을 갖추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형성된 모든 것은 공하지 아니한가? 뛰어난 성자이신 시키 부처님은 앗사사원에서 열반에 드신다. 그곳에 그 부처님의 탑이 세워지는데, 높이가 3요자나(33km)이다.

---

*주석1 :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삘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_[KN-Bvṃ-a-gaṇṭharambha-kathā]

*주석2 :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 불종성경(KN-Bvṃ ch.2, n. 69)에서는 웃따라와 난다마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굿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 원문의 게송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꼰단냐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_(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광명과 왕생극락 인도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375년에 지은 초문사(肖門寺)라고 한다. 또 같은 시기에 아도 화상을 위해 지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찰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월만큼 사찰의 모습도 변하였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一柱門), 천왕문(天王門), 불이문(不二門), 전각(殿閣),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요사채, 후원(後院), 해우소(解憂所) 등으로 되어 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은 사찰 입구에 있는 문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진 곳들은 전(殿)이라 하고, 산신 등을 모신 건물은 각(閣)이라 한다.

해인사 대적광전

부석사 무량수전

대적광전(大寂光殿)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大光明殿)은 줄여서 대광전(大光殿)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의 주불(主佛)인 비로자나부처님이 두루 비치는 빛, 즉 광명이나 적광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다. 또한 화엄종 사찰의 주불전일 경우 이 이름을 붙이지만, 주불전이 아닐 경우에는 비로전(毘盧殿)이라 한다. 대적광전은 삼신불(三身佛) 사상에 따라 중앙에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왼쪽에 보신(報身) 노사나부처님, 오른쪽에 화신(化身)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사찰에 따라 법신 노사나부처님, 보신 아미타부처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수인은 오른손으로 세운 왼손의 검지를 감싸쥔 지권인(智券印)으로 이것은 이(理)와 지(智), 중생(衆生)과 부처, 어리석음와 깨달음이 본래 하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또 대광명전, 광명전, 비로전이라고도 한다.

극락보전(極樂寶殿)

극락전 혹은 극락보전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법당이다. 미타삼부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찰에 따라서는 무량수전(無量壽殿), 수광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명장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무량수불을 모시지만 아미타불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경우는 정토신앙 계통의 종파나 화엄종 등 사찰의 주불전이 될 때이다. 주불전이 아닌 경우에는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阿彌陀殿)이라 한다.

아미타부처님은 법장비구로 수행하던 시절에 48대원을 세워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모든 것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방의 극락

정토를 건설하셨다고 한다. 그때 세웠던 서원에 따라 누구나 일념으로 '아미타불'이란 명호만 부르면 극락왕생시켜 준다고 한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다음으로 많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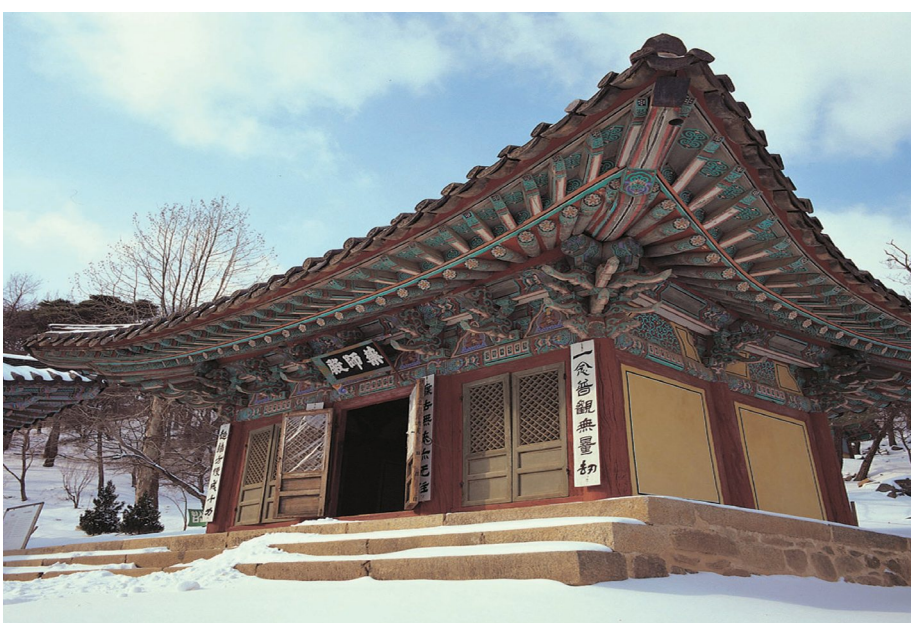
아미타부처님은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미타정인(彌陀定印)이라 하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 아홉 가지 다른 수인을 취한다. 아미타부처님의 협시보살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혹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이 모셔진다. 대표적인 극락전은 천은사와 무위사에 있는 극락전이고 무량수전으로는 부석사가 유명하다.

약사전(藥師殿)

약사전(藥師殿) 또는 유리광전(琉璃光殿), 유리보전(琉璃寶殿)은 동방 유리광세계의 교주인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약사전은 보통 동향인데, 그것은 약사여래의 정토가 동쪽으로 무수한 불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약사여래는 보살이었을 때 열두 가지 서원을 세우고 수행했는데, 그 가운데 제6원은 '몸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중생은 모두 단정한 몸을 얻고 모든 병이 소멸되기를 원한다', 제7원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은 질병이 소멸되고 온갖 재물을 얻어 몸과 마음이 안락하기를 원한다', 제10원은 '중생이 온갖 고뇌에 시달려도 나

전등사 약사전



금산사 미륵전

의 복덕과 힘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다. 그 열두 가지 서원을 성취해서 세운 정토가 유리광세계(琉璃光世界)이다. 약사여래는 그곳에서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한다. 약사여래의 인계는, 오른손은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과 비슷하고 왼손에는 약병이나 약합, 약단지(무가주)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삼계인을 짓고 있다. 후불탱화는 그 여래의 정토를 묘사한 동방약사유리광회상도(東方藥師琉璃光會上圖)이다.

좌우 협시보살로는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모신다. 우리나라에는 이 전각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통도사 약사전, 송광사 약사전, 관룡사 약사전, 고운사 약사전 등이 남아 있다.

미륵전(彌勒殿)

미륵전은 미래에 출현할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을 주불로 모신 불전이다. 또한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하여 용화세계를 이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미륵전 혹은 용화전(龍華殿)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 준다는 의미로 오른손 끝을 위로 향하게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게 하는 시무외인과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로 왼손 끝은 아래로 하여 손바닥을 밖으로 보이는 여원인을 하고 있다. 협시보살로서 법화림보살과 대묘상보살 혹은 묘향보살과 법륜보살을 모신다. 미륵은 자씨(慈氏)라고 번역하기도 해 미륵전을 자씨전(慈氏殿)이라고 하기도 한다.

차와 동백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전남 강진 만덕산 백련사

강진 백련사는 천태종의 중흥 사찰로 천태사상에 입각한 결사도량을 개설하여 침체된 불교 중흥을 꾀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839년 무염 스님이 창건하였다. 사찰의 이름은 만덕산 백련사라고 불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만덕사로 불렀다. 하지만 근래에 다시 이름을 고쳐 백련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백련사를 가리켜 '남쪽바다에 임해 있고 골짜기 가득히 송백이 울창하여 동백 또한 곁들여서 수목이 싱싱하게 푸른 모습이 사계절을 통해 한결같은 절경'이라고 한 만큼, 백련사 주위의 경관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대웅보전과 명부전

대웅보전

전남 강진군 만덕산에 있는 백련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大興寺)의 말사이다. 백련사에 대한 사적은 1432년(세종 13) 윤회가 저술한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정약용(丁若鏞)의 『만덕사지(萬德寺誌)』 등에 나타나 있다.

만덕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덕사(萬德寺)라고도 하였다. 이 절은 통일신라시대인 839년(문성왕 1) 무염(無染) 국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1211년(희종 7) 요세(了世) 스님이 크게 중창한 뒤부터 수도 중심 도량의 면모를 갖췄다고 한다.

요세스님은 천태종계(天台宗系)의 승려로서 친분이 깊은 지눌스님과 함께 송광사에 머물다가, 1208년에 천태종의 묘의(妙義)를 얻었고, 강진에 살고 있던 최표와 최홍, 이인천 등의 권유로 만덕산에 자리를 잡고 그의 제자 원영(元瑩)스님으로 하여금 가람 80칸을 짓게 하였다. 이 역사는 1211년부터 1232년(고종 19)까지 21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당시 목백(牧伯)이 지극한 정성으로 재물을 보시하였다고 한다.

절이 완공되자 요세스님은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개설하고 실천 중심의 수행인들을 모아 결사(結社)를 맺었다. 이것이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수선사(修禪社)와 쌍벽을 이루었던 백련사결사(白蓮社結社)이다. 백련결사는 고려 후기 무신정권 시기에 암울한 현실과 몽고와 왜구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고난의 시대에 유생, 지역의 토호세력,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참회와 염불수행을 통해 정토세계를 염원하는 민간 결사운동이었다. 그 뒤 이 절에서는 120년 동안 고려의 8국사(國師)를 배출하였다. 고려 말에는 강진지방이 세 차례의 왜구침입을 받았을 때 이 절도 함께 폐허화되었다.

조선 세종 때인 1430년 행호대사가 효령대군의 후원으로 불타버린 가람을 복원하고 왜구의 침입에 맞서 행호토성(行乎土城)을 쌓고 사찰의 기틀을 다시 세웠다. 백련사는 지금도 그때 쌓은 토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1430년부터 시작된 대대적 불사작업에는 효령대군의 도움이 컸다. 효령대군은 왕위를 동생(세종)에게 양보하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강진땅 백련사에 들어 8년 동안 기거하였다. 효종 때 3차 중수를 하면서 탑과 사적비를 세웠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백련사는 청허 휴정선사의 의발을 전수 받은 소요대사, 해운대사, 취여대사, 화악대사, 설봉대사, 송파대사, 정암대사, 연파대사 등 8명의 종사를 배출하며 법맥을 이어왔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 시왕전(十王殿), 나한전(羅漢殿), 만경루(萬景樓), 칠성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써 각 추녀마다 네 개의 활주를 세워 건물을 받치고 있으며, 전면 두 개의 주두는 용두(龍頭)로 장식한 다포집 건물이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다. 또한 만경루는 규모가 큰 누각으로 강진만 일대의 바다를 환히 바라볼 수 있다.

주요 유적으로는 만덕산 백련사사적비와 원묘국사중진탑(圓妙國師中眞塔)이 있다. 사적비의 거북은 앉은 키가 높은 편이고 용의 눈이 험상궂게 생긴 귀부(龜趺) 위에 비신(碑身)이 있으며, 그 위에 옥개석 모양을 한 가첨석이 놓여 있다. 중진탑은 방형의 지대석 위에 연화문(蓮花文)의 중대석이 있으며,

백련사 전경과 강진만 일대

백련사 부도전

상대석에도 무늬가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절 주위에는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백련사의 동백림과 정약용이 신유사옥 때 강진으로 귀양와서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하고 차를 끓여 마시던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강진에 유배온 지 4년 후인 1805년 백련사의 혜장선사(1772~1811)를 찾아와 '주역'과 '역경'이야기로 밤을 지새운 일화는 유명하다. 혜장선사는 동문 밖 주막집에 머물고 있는 정약용에게 고성사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겨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이후 서로 친밀한 교류를 이어 갔다. 또한 혜장은 다산에게 경학을 배우고 차를 권하는 등 종교와 나이를 초월한 진솔한 만남을 이어갔다.

'백련사의 동백림'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을 춘백이라 부르고, 가을에 피는 꽃을 추백, 겨울에 피는 꽃을 동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꽃이 매우 아름답기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동백림 속에는 드문드문 굴참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매우 아름다운 숲을 이룬다. 동백나무 숲을 지나 다산초당까지 가는 산책길에는 백련사에서 재배하는 차밭과 야생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찾아가는 길

광주대구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동광주나들목에서 빠져나온 후 나주 방면으로 1번 국도를 이용, 영암을 거쳐 강진까지 가면 된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에서 내려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으로 간다. 순천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벌교, 보성, 장흥을 지나 강진으로 가면 된다.

2018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노인분야 예산은 2017년 예산에서 19.4%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9.8%(추경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10.7%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노인분야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원의 18.3%, 사회복지분야 예산 53조 7,838억원의 21.8%를 차지하고, 노인분야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노인 1인당 노인분야 예산은 2018년 159만4,337원으로 2017년 138만3,547원보다 21만790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정책관 소관 예산은 2018년 노인 1인당 26만1,188원으로 2017년 24만6,296원보다 1만4,892원이 늘어났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인분야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83.6%로 2017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초연금 예산은 2018년에 9조8,399억원으로 2017년보다 21.5%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17년의 498만3,000명보다 18만4,000명 증가한 516만7,000명으로 늘었고, 기준 연금 지급액도 2017년 20만6,000원에서 2018년 25만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주요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본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분야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2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490% 대폭 증가했다. 이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77.6%, 977억원 순증한 것에 기인한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2018년에 총 192개소 확충할 예정이며, 치매를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치매에 한정한 노인 정책 추진과 예산 증액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7년 5,231억원에서 2018년에 6,348억원으로 21.3%가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일자리 수가 2017년 46만7,000개(추경 기준)에서 2018년 51만4,000개로 4만7,000개 증가한 것과 2017년 8월부터 활동비가 27만원으로 오른 것을 반영한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의 양적확대와 급여 증가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약 70%의 노인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

실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여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수준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돌봄서비스 분야

노인 돌봄서비스 예산은 2017년 1,689억원에서 2018년에 987억원으로 41.6%가 감소했다. 이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된 것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

2018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은 887억원으로 2017년 대비 101억원 증가하였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5,000명 증가한 24만명이며, 인건비 증가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서비스관리자는 2017년 대비 25명이 줄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며,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7.8%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8%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23.2%로 전망하고 있듯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등을 위한 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2017년 6,689억원에서 2018년 7,238억원으로 8.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거해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하였다.

또한 2018년 건강보험요율은 2.04% 인상이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액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현재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분야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17년에 73억원에서 2018년에 74억원으로 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수단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 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16년 4,28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노인학대 피해 경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 사업비는 예년과 동일하여 노인보호서비스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낮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이 아니면 학대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학대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 후원금을 조성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최근 UN 사회권 최종 심의에서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듯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분야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이 2017년 본예산 154억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추경을 통해 2,1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18년에는 2,33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기준 513.5%, 추경 기준 6.7% 증가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2018년에 관련 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만 한정한 요양병원 확충 등은 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하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책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료출처 :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법왕사 소식

의식용 번 불사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각종 의식에 사용하는 다양한 번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사에는 오방번, 용왕(방생)번, 원왕생번, 시왕번 등 4종으로 각종 의식에 맞게 내걸어 의식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의식을 더욱 여법하게 하는 법구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무술년 정초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25일) 여수 향일암 선상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당일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새해 첫 방생법회에 많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4층 신중탱화 봉안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기는 동참금은 1인 10만원입니다.

제35회 백고좌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제35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회로 지난 20여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왔으며 때로는 연 2회를 봉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 35회를 맞이하는 백고좌법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삼신불 좌우 협시 문수 · 보현보살 봉안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신불 점안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불단의 마지막 불사로 좌우 협시보살로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실천제일 보현보살상을 봉안합니다. 삼신불에 이어 보살상까지 봉안하면 법왕사 대적광전은 완벽한 도량으로 거듭나며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2일 무술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삼재풀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올해 삼재는 범띠, 말띠, 개띠가 해당되는데 기도 동참자는 1인 쌀 3되3홉, 동전 나이 수대로, 묵은 속옷 1벌을 준비하면 되며 동참금은 1인 3만원입니다. 이날 저녁 7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모두 불태워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영가를 위한 닫집 연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닫집 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닫집 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송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의식을 위한 법구로 꽃상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닫집 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인등 접수 중

법왕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밝혀온 인등을 새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신인등, 본당인등, 4층 대적광전 인등을 밝히고 싶은 분은 종무소로 접수하시고 현재 등록하고 계신 불자들은 올해 무술년에도 계속 밝힐지 여부를 종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2018년 무술년 정초 7일 기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 정월을 맞이하여 2월 18일(음 1월 3일)부터 2월 24일(을 1월 9일)까지 7일간 정초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동참금은 설판 시주자는 10만원, 가족은 5만원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여 일년 동안 불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입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성도재일 1인 1등 밝히기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24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1인1등 켜기 특별법회르 봉행합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018년 법왕불교대학 1학기 개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심신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주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3월 13일에, 중급반은 3월 20일에 개강하며 주간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무술년 입춘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입춘일을 맞이하여 보름까지(3월 2일)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올해 입춘시는 2월 4일(음 12월 19일) 오전 6시 28분으로 이날 기도법회 후 동참자 전원에게 입춘방과 부적을 나눠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 해오름 풍물단 활동 활발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소속 우리 해오름 풍물단은 법왕사 불자들 20여명이 결성한 전통 풍물단으로 사물놀이 및 풍물놀이를 연마하여 법왕사 주요 행사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공연뿐 아니라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 불자들입니다.

2018년 무술년 설날 합동차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16일 무술년 설날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합니다. 설날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으로 명절은 물론 조상 영가천도에도 큰 도움이 되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5만원이며 문의는 종무소 053-766-374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무사고 기원 기도

법왕사에서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차량을 소유하신 불자를 위해 무사고 기원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2월 16일(음 1월 1일)에 입재하여 3월 2일(음 1월 15일) 정월대보름에 회향합니다. 동참금은 3만원이며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정현석 김상우 한미애 박수진 김병문 이국재
정준영 김민영 정현석 이승준 석종필 이종희

사보 도움 주신 분

최창숙 50부 우영근 20부 김성락 20부
김진양 20부 우재균 1000부 대혜궁 300부
박두양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올리신 분

김근태 권보형 전숙환 양영갑 양문갑
이세정 김민정 김분용 곽귀여자
백대행심

◎ 공양미 올리신 분

백철기 양봉률 오성남 성 윤 성 충
심보현 김유창 강춘희 김선우 김선민
류윤만 안태임 김상한 김도심화
제갈경화

◎ 과일 공양하신 분

이현주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우영근

◎ 물품 보시하신 분

이영석(휴지) 손금자(사무용품) 안병목(침대)

◎ 꽃공양 올리신 분

베트남불자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1/25)

강유주 1만원 류윤형 1.5만원 장명희 5천원
강창현 2만원 서필희 1만원 장미야 4천원
강춘희 2만원 서필희 1만원 전성복 1만원
김관용 5천원 성점순 1만원 전재필 5천원
김명선 2.5만원 손동림 5천원 전태일 5만원
김명숙 1.5만원 손동림 5천원 정순희 2만원
김성자 1만원 손향숙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수라 3만원 송순분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연자 1만원 송윤선 7만원 정옥선 1만원
김옥자 1만원 신인숙 5천원 정재순 3만원
김정옥 1만원 신정욱 4.5만원 조희선 2만원
김정옥 1만원 심규암 1.8만원 최진석 5천원
김제순 1만원 심영선 1.5만원 한천숙 1만원
김제순 1만원 오재대 1만원 홍경숙 1만원
김현숙 8천원 오창혁 1만원 황금석 7천원
김현숙 8천원 이숙희 2만원 황덕선 5천원
나형진 2만원 이호진 1만원

◎ 번 불사하신 분

좌보처번 최홍규 이영아
보 고 번 구승우 도경식 구제철 구제욱
지장보살번 이동학 채무희 이호형 이수민
이점선
항마진언번 최영곤 권숙자 유광식 최은진
차재민 최은정
우보처번 신재호 김현주 신현태 신현욱
권정애 신현종
구병시식번 김정숙 이성환
원앙생번 최금순 최금부 최금숙 최용철
최금애
용 왕 번 이희동 전숙희 이병노 홍경화
이윤슬 이혜경

◎ 신중탱화 불사하신 분

전진홍 최종열 권병우 박경영 유명옥
박진오 박인정 정계연 박경민 금태운
박은혜 최용석 이승환 제갈욱 류윤만
이매화 박말순 김기봉 김성훈 이옥남
류희승 류주연 김호연 최지예 유성종

권범수 이상연 유유남 김홍규 권혜진
이보련화 자윤스님 이마하심 지장회 일동

◎ 불명패 불사하신 분

본당 석가모니불 양영갑 권귀정 양혜진 양봉률 김윤호
본당 지장보살 김봉조 이정화 김현숙 김창용 이한결
본당 관세음보살 양문갑 황춘연 양봉훈 양혜영 양지영 김명재
용두관음보살 김상수 이지송 김정호 김수연
아미타불 이현자 이승환 송영선 이승민 이준우
석가모니불(석불전) 함지훈 구미영 함보리 함유진 구자환
산신각 산신회 일동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77 최민수 3578 권용재 3579 권우준
3580 김규빈 3581 김두현 3582 이광순
3583 김희지 3584 김나영 3585 성석환
3586 이귀남 3587 성주영 3588 성인우
3589 亡정규동 3590 亡김귀출 3591 亡장재만
3592 亡최태회

◎ 꽃등 올리신 분

1 백대행심 2 김종황 3 박해진 4 박경훈
5 권순경 6 손태익 7 오견덕화 8 김붕원
9 박영숙 10 이향숙 11 조영부 12 금태운
13 이재학 14 김상윤 15 권택훈 16 전재술
17 김호연 18 이우영 19 김수연 20 전병혁
21 신지원 22 이현자 23 권상태 24 박이자
25 신진우

◎ 일년등 올리신 분

132 전정광 133 최두홍 134 전삼수 135 노동근
136 최유자 137 성석환 138 이정희 139 박근수
140 최옥선 141 홍준기 142 석현진 143 이상률
144 김석원 145 장성용 146 박정흠 147 문상옥
148 박재관 149 박상환 150 권순예 151 김외환
152 우영근 153 문성섭 154 장정수 155 권범수
156 박종연 157 하경순 158 전영대 159 이선재
160 최종길 161 김종열 162 우종원 163 김영식
164 류현필 165 김중태 166 이성락 167 김병택
168 이석진 169 이창한 170 김하나 171 김병문
172 김창월 173 김진양 174 서병선 175 이우준
176 김상원 177 최옥분 178 권중훈 179 박수식
180 박종환 181 추순인 182 김점행 183 이재복
184 구승우 185 김상석 186 정태중 187 심재용
188 장세훈 189 김진호 190 송옥순 191 최우영
192 민병도 193 이호찬 194 이종화 195 정순덕
196 박재근 197 배재훈 198 송정화 199 신광옥
200 박종철 201 박종민 202 강정선 203 박호윤
204 한병덕 205 이재준 206 이지현 207 조영석
208 신웅균 209 김태홍 210 최상윤 211 양효숙
212 이순일 213 조성천 214 송형석 215 이한호

◎ 영가등 올리신 분

21 최재섭 22 박경민 23 장성용 24 장정수
25 우종원 26 박봉희 27 김상철 28 김수용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2 이은숙 3 이진욱 4 남기덕 5 이동재
6 이동주

◎ 닫집연 불사하신 분

제갈욱 亡진영덕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118 전진홍 124 최종열 125 권병우 126 문선재
127 조성민 177 김주석 178 장미야

◎ 산신각 인등 올리신 분

24 신민재 120 정원재 132 이준목 157 지주연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435 김희숙 436 김상섭 439 김병문

◎ 문수보살 불사하신 분
성 윤 이동학 이호형 이준우

◎ 보현보살 불사하신 분
성 윤 이승민 송순분

왕생극락하옵소서

◈ 亡최태회 영가의 초재가 12월 31일에 있었습니다.
◈ 亡김숙자 영가의 기제사가 1월 4일에 있었습니다.
◈ 亡정점연 영가의 천도재가 1월 6일에 있었습니다.
◈ 亡정규동 영가의 초재가 1월 6일에 있었습니다.
◈ 亡장재만 영가의 초재가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영왕 영가의 초재가 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亡박경동 영가의 막재가 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亡김순이 영가의 초재가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亡이강소 영가의 초재가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亡김경순 영가의 막재가 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亡진영덕 영가의 막재가 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亡박재상 영가의 기제사가 1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2018년 무술년 삼재기도 | 범띠, 개띠, 말띠(날삼재 寅戌午)

- 기도비 : 1인 3만원
- 준비물 : 쌀 3되 3홉
  묵은 속옷 1벌
  100원 동전(나이 수만큼)
- 풀이하는 날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저녁시간 7~9시까지)

寅 戌 午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해오름 요양원 1월 소식

촉탁의 진료

본 요양원에서는 한 달에 2번 이상 의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해드리는 촉탁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의사 선생님 오시는 날만 되면 안 아프던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술치료

매주 목요일 미술치료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나누며 각자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도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서로 몰랐던 사실들을 알기도 하고 옛 생각에 그리워도 하시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생신잔치&색소폰

2018년 무술년에 첫 생신잔치를 하였습니다. 색소폰 공연팀의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 축하노래를 부르며 폭죽을 터트리고 케이크 커팅도 하고나서 생신상을 물리고 색소폰 연주와 선생님들 노래, 어르신들 노래로 즐거운 잔치를 이어나갔습니다. 끝나고 케이크도 나눠드시며 생신잔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들 생신 축하드립니다.

무하스님의 웃음치료

무술년을 맞이하여 무하스님께서 이번에는 재미난 분장을 하지 않으시고 어르신들에게 불경을 읽어드리고 함께 읽어보기도 하시며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법당에 자유롭게 못 가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 한해도 모든 소망 이루어지길 모두 합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봉사단(야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7년 12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강선옥 5만원
강소남 5천원
강영도 2만원
고연숙 1만원
고재욱 2만원
구정대 2만원
권순득 1만원
권순미 1만원
권순영 1만원
권순칠 1만원
권영철 5천원
권오관 2만원
권오국 2만원
권춘자 3만원
금명섭 5천원
김건희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기수 2만원
김대현 5천원
김만기 5천원
김명숙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미희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봉숙 5천원
김성의 1만원
김수곤 5천원
김수라 1만원
김수자 1만원
김숙희 1만원
김순덕 1만원
김순연 1만원
김순태 1만원
김양순 1만원
김영호 1만원
김영희 5천원
김옥경 1만원
김옥희 5천원
김외환 1만원
김용태 1만원
김우영 1만원
김원형 3만원
김의목 1만원
김정규 5천원
김정숙 5천원
김정숙 5천원
김정순 3만원
김정임 1만원
김정자 5천원
김주현 1만원
김진성 1만원
노귀자 5천원
노수정 1만원
도순자 1만원
도화순 5천원
류윤만 1만원
류혼자(지일) 5천원
문성섭 1만원
박경란 1만원
박경자 5천원
박귀분 1만원
박남희 3만원
박대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박상용 5천원
박성숙 5천원
박성용 5천원
박성은 5천원
박수진 1만원
박순남 5천원
박순영 5천원
박원태 1.5만원
박인철 1만원
박종규 1만원
박종환 1만원
박치민 5천원
박희조 5천원
반룡사 1만원
배수현 2만원
배하수 1만원
사공관 2만원
서동남 1만원
서찬수 1만원
성기옥 1만원
성인자 1만원
손수연 1만원
송민경 1만원
송정숙 5천원
시명숙 1만원
신구자 5천원
신귀화 1만원
신돈식 1만원
신임선 5천원
신충호 5천원
신홍준 1만원
신화식 1만원
심규암 5천원
안경순 1만원
안명희 1만원
안희선 1만원
양나영 5천원
양봉률 1만원
양지영 1만원
양혜진 1만원
양희숙 1만원
여택동 5천원
오난옥 5천원
용마관음사 3만원
유경희 1만원
유명옥 1만원
윤종수 1만원
이남희 1만원
이명숙 1만원
이명희 1만원
이병노 1만원
이병희 1만원
이복희 1만원
이상혁 1만원
이석규 5만원
이성환 5천원
이수현 1만원
이승환 5천원
이옥자 1만원
이용욱 1만원
이유태 1만원
이인순 5천원
이임숙 2만원
이재봉 5천원
이전희 5천원
이점예 2만원
이정숙 1만원
이정연 5천원
이정옥 1만원
이정화 1만원
이정희 3만원
이정희 5천원
이종희 5천원
이준우 5천원
이창수 1만원
이채원 1만원
이현옥 1만원
이호동 5천원
이효조 1만원
임상덕 1만원
장성규 5천원
장시원 1만원
장재혁 5천원
장찬규 5천원
정경석 2만원
정경숙 1만원
정명선 2만원
정무시 1만원
정미화 1만원
정민경 1만원
정숙자 1만원
정순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정연이 5천원
정옥선 1만원
정옥수 5천원
정인순 5천원
정태교 5천원
정혜숙 1만원
조규인 1만원
조성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조영주 1만원
조정자(장민석) 1만원
진봉희 1만원
채옥연 5천원
최분규 1만원
최승임 1만원
최영희 1만원
최윤희 5천원
최창숙 5천원
한규매 1만원
한희록 1만원
허유미 5천원
홍기학 1만원
홍애분 1만원
황미선 2만원
황영희 1만원
황학영 1만원

총합계 : 1,94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0,000원　강미경 10,000원
운불련 1,50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정숙희　박정하　이성건　호산반점(박남숙)
최금부

◎ 지출내역

쌀 구입비	: 1,700,000원
보호자간담회 음식	: 336,8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60,000원
필요물품 구입비	: 36,520원
세탁기 수리비	: 69,500원

총지출 : 2,291,32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통
김원기 어르신 보호자 : 찐빵 7통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사과즙 4박스, 쌀20kg 1포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두유 2박스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귤 2박스
양지영 : 물티슈 30만원 상당
무하스님 : 떡 1상자, 귤 1박스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이재희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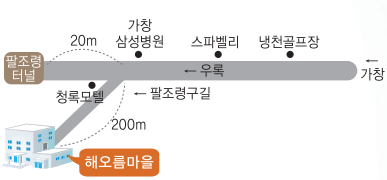
- **직원 동정**
  신규 정숙희 요양보호사
  입사를 축하합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 참 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 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영가를 위한 닫집연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닫집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닫집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송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법구로 꽃상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닫집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닫집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무술년 2018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께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가족등 – 10만원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들어 첫번째인 제35회 백고좌법회를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5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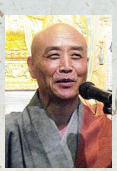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1일차
3월 5일
입재법문
무관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 4일차
3월 8일
특별법문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 8일차
3월 16일
특별법문
일장 비구니 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 12일차
3월 16일
특별법문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 일시 : 2018년 3월 5일 ~ 6월 12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3월 5일 (月)	무관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7일차	3월 11일 (日)	대주스님	부천 대륜사 주지
2일차	3월 6일 (火)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8일차	3월 12일 (月)	일장 비구니 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3일차	3월 7일 (水)	도산스님	법어사 금강암 총무	9일차	3월 13일 (火)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4일차	3월 8일 (木)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10일차	3월 14일 (水)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5일차	3월 9일 (金)	노휴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11일차	3월 15일 (木)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6일차	3월 10일 (土)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12일차	3월 16일 (金)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